

맥체인 성경읽기 12.1

역대상 29장

성전 건축에 쓸 예물

1-5 다윗 왕이 회중에게 말했다.

“하나님께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셔서 이 일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리고 경험이 없으며, 이것은 너무도 큰일입니다.

이 성전은 그저 사람들이 만나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집입니다.

나는 내 하나님을 위해 이 집을 짓고자 최선을 다해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금과 은, 청동, 철, 재목, 각양각색의 보석과 건축용 석재 등 필요한 모든 자재를 산더미처럼 준비해 두었습니다.

더욱이 내 마음이 이 일을 간절히 원하므로, 내게 있는 금과 은도 내 하나님을 위한 예배 처소를 짓는 데 바치겠습니다.

오빌에서 난 최상품 금 3,000달란트 (약 113톤) 와 은 7,000달란트 (214톤) 입니다. 이것으로 성전 벽을 입히고, 기술자와 장인들이 각

종 금과 은으로 작업하는 데 쓸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자원하여 기꺼이 나와 함께 바칠 사람이 있습니까?”

6-8 그러자 각 가문의 족장과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도자와 군지휘관과 왕의 사무를 맡은 관리자들이 자원하여 기꺼이 바쳤다. 그들은 금 5,000달란트 (188톤) 와 금 10,000다릭 (83.9킬로그램) , 은 10,000달란트 (377톤) , 청동 18,000달란트 (679톤) , 철 100,000달란트 (3,775톤) 를 바쳤다.

보석을 가진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히엘의 관리 아래 하나님의 성전 보물 보관소로 가져다 바쳤다.

9 백성은 그들이 바친 모든 것으로 기뻐하며 환호했다! 모두가 자원해서, 아낌없이 바친 물건이었다. 다윗 왕도 크게 기뻐했다.

10-13 다윗은 온 회중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옛적부터 영원까지 찬양받으소서.
오 하나님, 위대하심과 능력,

영광과 승리와 위엄과

영화가 모두 주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

모든 나라가 주의 것입니다!

주께서 친히 모든 것 위에 높이셨습니다.

부귀와 영광이 주께로부터 나오며

주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그 손안의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세우시고 강하게 하십니다.

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송합니다.

14-19 “제가 누구이며 이 백성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감히 주께 그 무엇을 바칠 수 있겠습니까?
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옵니다. 다만 우리는 주의
의 넉넉하신 손에서 받은 것을 돌려드릴 뿐입
니다.

주님 보시기에 우리는, 우리 조상들처럼 집 없
고 힘없는 방랑 자에 불과하며, 우리의 삶은
그림자와 같이 보잘것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 모든 자재 —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고 예배드릴 처소를 짓기

**위한 물건들 — 는 다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처음부터 다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께서는 겉모습에 전혀 관심이 없으시고 우리 자신, 우리의 참된 마음을 원하시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으로부터 정직하고 기쁘게 바쳤습니다.

이 백성도 똑같이 자원하여 아낌없이 바치는 것을 보십시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하나님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

**엘의 하나님, 아낌없이 드리는 이 마음이 이
백성 안에 영원히 살아 있게 하시고, 이들의
마음이 주께만 머물게 하십시오.**

**제 아들 솔로몬에게 흐트러짐 없는 굳건한 마
음을 주셔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주님의
지침과 권고대로 살아가게 하시며, 제가 준비한
성전 건축을 완수하게 해주십시오.”**

20 그러고 나서 다윗은 회중에게 말했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러자 그들은 하나님 그들 조상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왕 앞에서 경건하게 예배했다.

21-22 이튿날 그들은 희생 제물로 바칠 짐승을 잡았다. 수소 천 마리, 숫양 천 마리, 양 천 마리, 부어 드리는 제물 등 많은 제물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바쳤다.

그들은 기쁨에 넘쳐 온종일 잔치를 벌이며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다.

22-25 그 후에 그들은 솔로몬의 대관식을 다시 거행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지도자로 삼고, 사독에게

기름을 부어 제사장으로 세웠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왕위에 앉아 왕이 되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잘되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에게 순종했다.

다윗 왕의 모든 아들을 포함한 백성의 지도자들이 솔로몬을 그들의 왕으로 인정하고 충성을 맹세했다.

솔로몬에게 쏟아진 대중의 갈채는 절정에 달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 이스라엘의 어떤 왕도 누리지 못한 지위와 명예를 그에게 주셨다.

26-30 이새의 아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사십 년 동안 다스렸다.

그는 헤브론에서 칠 년, 예루살렘에서 삼십삼년을 다스렸다. 그는 부와 영광과 장수를 누리다가 수를 다하고 죽었다.

다윗 왕의 역사는 선견자 사무엘, 예언자 나단, 선견자 갓의 연대기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록되어 있다.

그의 통치와 업적, 그와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들이 겪은 당대의 역사가 그 안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베드로후서 3장

마지막 때

1-2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이 편지는 내가 여러분에게 두 번째로 쓰는 편지입니다. 나는 이 두 편지를 통해 여러분이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여러분을 일깨우고자 합니다.

거룩한 예언자들의 말과 여러분의 사도들이 전해 준 우리 주님이신 구주의 계명을 명심하십시오.

3-4 무엇보다 이것을 알아 두십시오.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전성기를 누릴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자기들의 보잘것없는 감정 수준으로 끌어내려, “그분께서 다시 오겠다고 약속했는데, 어찌 된 거요? 우리 조상들이 죽어서 땅에 묻혀 있고, 모든 것이 창조 첫날 이래로 그대로이지 않소? 변한 것이 하나도 없잖소?” 하고 조롱할 것입니다.

5-7 그러나 그들이 쉽게 잊어버리는 사실이 있습니다.

모든 천체와 이 지구가 오래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물로 덮인 혼돈에서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홍수로

혼돈을 일으켜 세상을 파멸시켰습니다.

**지금 있는 천체와 지구는 마지막 불심판 때
쓰일 연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실 준비를 하고 계십
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회의론자들을 심판하
고 멸망시키겠다는 신호를 보내고 계신 것입니
다.**

하나님의 심판 날

**8-9 친구 여러분, 이 분명한 사실을 그냥 지
나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 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더디 이루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위해 참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종말을 유보하고 계신 것은, 한 사람도 잃고 싶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에게 삶을 고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베풀고 계십니다.

10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날이 닥칠 때에는, 아무 예고 없이 도둑처럼 닥칠 것입니다.

하늘이 천둥 같은 소리를 내면서 무너지고, 모

든 것이 큰 화염에 휩싸여 분해되며, 땅과 그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이 낱알이 드러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11-13 오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내일이면 없어지고 말 것들입니다.

그러니 거룩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고, 그 날이 오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십시오.

그날이 오면 천체가 불타 없어지고, 원소들이 녹아내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의 알아채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약

**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 의로 뒤덮인 새 하늘
과 새 땅을 맞이할 것입니다.**

**14-16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여러분이 손꼽
아 기다려야 할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 순결하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최상의
모습으로 그분을 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십
시오. 우리 주님께서 오래 참고 계신 것은 구
원 때문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이 문제와 관련해 많은 지혜를 받은 이가 우
리의 귀한 형제 바울입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편지에서 이 문제를 언급하고 있으며, 여러분에
게도 본질적으로 같은 내용을 써 보냈습니다.**

바울이 편지에서 다루고 있는 것 가운데 몇 가지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무책임하게 떠드는 사람들이 그 편지들을 함부로 왜곡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성경의 다른 구절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다가 스스로를 파멸시키고 있습니다.

17-18 그러나 친구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훈계를 잘 받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떠드는 불의한 교사들로 인해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십시오.

우리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십시오.

영광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님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미가 6장

하나님께서서 이스라엘의 죄를 밝히시다

1-2 이제 귀 기울여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라.

“법정에 출두하여라.

고소할 일이 있거든, 산들에게 말하여라.

언덕들에게 진술하여라.

산들아, 이제, 하나님의 진술을 들어 보아라.

땅아, 배심원 땅아, 들어 보아라.

내가 내 백성을 고소한다.

이스라엘을 고소한다.

3-5 사랑하는 백성들아,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잘못했느냐?

내가 너희를 괴롭혔느냐?

너희를 지치게 했느냐?

대답해 보아라!

**나는 이집트에서 고생하던 너희를 건져 주었다.
종살이하던 너희를 큰 값을 치르고 구해**

주었다.

너희 길을 인도하라고 모세를 보냈고,

아론과 미리암까지 함께 보냈다!

모압의 발락 왕이 어떤 계락을 꾸몄는지,

브올의 아들 발람이

어떻게 그것을 맞받아쳤는지 떠올려 보아라.

싯딤에서부터 길갈에 이르기까지의 일들을 떠올려 보아라. 그 모든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다시 되살려 보아라.”

6-7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높으신 그분께 합당한 경의를 표할 수 있을까?

제물을 한 아름 바치고, 일 년 된 송아지를 그 위에 얹어 바치면 될까? 수천 마리의 숫양, 수천 통의 올리브기름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실까? 만아들을, 금쪽같은 아기를 희생 제물로 바치면 그분께서 마음을 움직여 내 죄를 없애 주실까?

8 아니다. 그분께서는 이미 말씀해 주셨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

간단하다.

이웃에게 공의를 행하고,

자비를 베풀고 사랑에 충실하며,

자신을 중심에 두지 말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
시면 된다.

9 주목하여라!

하나님께서 도성을 향해 소리 높이신다!

귀 기울여 듣는 게 좋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 모두 들어라! 중대한 일이다.

10-16 “너희는 내가,

속이고 빼앗아 부자가 된 너희를

그냥 좌시하리라고 생각했느냐?

너희의 부정한 거래와 더러운 계락을

그냥 참아 줄 것이라고 생각했느냐?

허세와 거짓말로 내 백성을 등쳐먹는 광포한

부자들, 이제 넌더리가 난다.

**나는 참을 만큼 참았다. 이제 너희는 끝났다.
마지막 한 푼까지, 너희 죄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되리라. 아무리 많이 가져도, 결코 채워
지지 않을 것이다.**

배도 허기지고, 마음도 허기질 것이다.

아무리 애써도,

결국 내세울 것 하나 없게 될 것이다.

삶도 파산하고 영혼도 황폐해지리라.

잔디를 심어도 잔디밭을 얻지 못하리라.

잼을 만들어도 빵에 바르지 못하리라.

사과를 짜도 사과주스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는 너희 왕, 오므리를 본받아 살았다.
아합 가문 사람들의 퇴폐적인 삶을 따랐다.
그들의 유행을 종처럼 좇았으니,
내가 이제 너희를 파산시킬 것이다.

너희의 인생은 조롱거리와 재미없는 농담거리
로 전락할 것이다. 무가치하고 거짓된 인생이었
다고 비웃음을 살 것이다.”

누가복음 15장

잃어버린 양 한 마리

1-3 평판이 좋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주

변에 머물며, 그분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었다. 바리새인과 종교 학자들은 이것이 전혀 달갑지 않았다. 그들은 화가 나서 투덜거렸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함께 식사하며, 그들을 오랜 친구처럼 대한다.”

그들이 불평하자 예수께서 다음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4-7 “너희 가운데 한 사람에게 양 백 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고 하자. 너희라면 아흔아홉 마리를 들판에 두고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그러다가 찾으면, 너희는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즐거워하며 집에 돌아와서는, 친구와 이웃들을
불러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나와 함께 축하합니다.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습니다!’**

**내가 분명히 말한다. 구원이 필요하지 않은 아
흔아홉 명의 선한 사람보다, 구원받은 죄인 한
사람의 생명으로 인해 천국에는 더 큰 기쁨이
있다.”**

잃어버린 동전 하나

8-10 “어떤 여자에게 동전 열 개가 있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다. 그렇다면 그 여자가 그 동전 하나를 찾을 때까지, 불을 켜고 집을 뒤지며 구석구석 살피지 않겠느냐?

그러다가 찾으면, 틀림없이 친구와 이웃들을 불러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나와 함께 축하합시다. 내가 잃어버린 동전을 찾았습니다!’

내가 분명히 말한다. 잃어버린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때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바

로 그와 같이 파티를 벌이며 축하 한다.”

잃어버린 아들 이야기

11-12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제가 받을 유산을 지금 당장 주십시오.’

12-16 아버지는 재산을 두 아들의 몫으로 나누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둘째 아들은 짐을 싸서 먼 나라로 떠났다. 거기서 그는, 제멋대로 방탕하게 살면서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날려

버렸다. 돈이 다 떨어졌다.

**그때에 그 나라 전역에 심한 기근이 들었고,
그는 구차한 형편에 처하게 되었다. 그는 그
나라에 사는 한 사람에게 일감을 얻어, 들판에
나가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되었다.**

**그는 배가 너무 고파서 돼지 구정물 속의 옥
수수 속대라도 먹고 싶었지만, 그것마저 주는
사람이 없었다.**

17-20 그제야 정신을 차린 그가 말했다.

**‘내 아버지 밑에서 일하는 일꾼들도 식탁에 앉
아 하루 세 끼를 먹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

는구나. 아버지께 돌아가야겠다. 가서 아버지,
제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 죄를 지
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 이라 불릴 자격
도 없으니, 저를 품꾼으로 받아 주십시오 하고
말씀드리자.’

그는 바로 일어나서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갔
다.

20-21 그가 아직 멀리 있는데, 아버지가 그를
보았다. 아버지는 뛰는 가슴으로 달려나가, 아
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말했다.

‘아버지, 저는 하나님께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다시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22-24 그러나 아버지는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아버지는 종들을 불렀다.

‘어서 깨끗한 옷 한 벌을 가져다가 이 아들에게 입혀라. 손가락에 집안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라.

그리고 좋은 사료로 키운 암소를 잡아다가 구워라. 잔치를 벌여야겠다! 흥겹게 즐겨야겠다!

내 아들이 여기 있다. 죽은 줄 알았는데, 이렇

게 살아 있다!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이렇게 찾았다!’

그들은 흥겹게 즐기기 시작했다.

25-27 그 일이 있는 동안에 맏아들은 밭에 나가 있었다. 그가 하루 일을 끝내고 들어오는데, 집 가까이 이르자 음악소리와 춤추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종을 불러서 무슨 일인지 물었다.

‘동생 분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가 무사히 집에 돌아왔다고 주인어른께서 잔치를 열라고 명하셨습니다. 쇠고기 파티입니다’ 하고 종이

말해 주었다.

28-30 맏아들은 분하고 언짢아서, 저만치 물러나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와 이야기하려 했으나, 그는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아들이 말했다.

‘제가 집에 남아서 한시도 속을 썩이지 않고 아버지를 모신 것이 몇 년째입니까? 그런데도 아버지는 저와 제 친구들을 위해 잔치 한 번 열어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돈을 창녀들에게 다 날리고 나타난 저 아들에게

는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 주시다니요!’

31-32 아버지가 말했다.

‘아들아, 네가 모르는 것이 있다.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흥겨운 때고, 마땅히 기뻐할 때다.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